

우리나라 낙농의 질병과 현장

김재경
베스트카운셀링 대표

1. 분만초기의 질병

젖소의 질병 발생은 대부분 분만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질병의 발생 유무 및 치료 결과에 따라 목장의 승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점차적으로 사양관리 기술 및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낙농가 여러분들은 제일 골머리 아프게 하는 것이 질병일 것이다. 막말로 질병만 없어도 목장 할만 하다고 한다. 질병은 목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부딪치게 되는 문제다. 질병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생각해 보자.

가. 난산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송아지 가격이 비쌀 때 어미 소의 분만 예정일이 다가오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긴장감에 싸여 괜히 불안해지고 이러한 상황이 발전되어 조급한 나머지 자궁 속에서 송아지의 위치와 방향 및 어미 소의 산도가 제대로 성숙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강제 분만을 시도하다 잘못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상황은 많은 여유가 생겨 느긋한 나머지 어미 소가 분만을 하든 안하든 별로 신경도 안쓰는 것 같다. 어떻게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는가? 목장을 경영하면서 분만하는 어미 소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 분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그놈의 송아지 새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송아지는 송아지 대로 어미 소는 어미소 대로 잘 분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조물주의 섭리대로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물론, 특이하게 어미 소의 산도가 좁거나 태아(송아지)가 너무 크다든지 태아의 자세와 방향이 잘못되어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경우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목장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난산은 초산우와 경산우에서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초산우는 처음 분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산도가 좁거나 숙성이 되지 않은 채 강제 분만을 하여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송아지(태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앞이마의 반 이상이 벗겨진 이후에 구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헛바닥 정도만 보이는 상태에서 구출하려고 하면 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잡아 당기면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삼도열상(직장과 질이 관통되는 현상)으로 무리하게 송아지를 잡아 당기면 발생함. 기질(질에 공기가 유입되어 방귀를 꾸게 되어 번식장



애의 요인이 됨), 질 주위염(질 주위가 염증으로 심하게 부어 식욕부진 증상을 장기간 나타냄), 경관 파열(경관이 파열 되면 도태 시켜야 함) 등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항상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 역산으로 나오는 경우는 발목 부분이 10~20cm 이상 나온 후에 구출해야 하는 것이다. 역산인 경우에는 제대로 구출했다고 해도 잘못되는 수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어미에서 송아지로 혈액 및 산도가 동시에 제대로 통해 공급되는데 이 제대가 압박되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그렇고 가끔은 제대가 파열되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초산의 경우 분만 과정에서 "순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송아지(태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어미 소의 입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장에서는 가뜩이나 분만하고 나면 유량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전혀 유량의 증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낙농가의 대부분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러한 경험을 하였고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산의 경우는 분만을 잘하면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다.

난산과 관련된 질병 중에서 후산정체를 들을 수 있는데 후산정체는 해부학적으로 궁부가 췌기 식으로 단단하게 어미 소의 자궁과 연결되어 있어 쉽

게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있지만 초산의 경우 자연 분만의 경우 보다 난산을 겪은 소가 후산정체율이 많이 발생한다. 일단 후산정체가 발생하면 또 다시 질병과의 싸움은 시작된다.

왜냐하면 어미 소가 자연적으로 식욕이 저하되 체온이 오르며 잘 움직이지 않고 눈이 쑥쑥 들어가고 운동장에 자리를 잡아도 지저분한 곳에 유방을 깔아 뭉개고 앉아 유방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만 저만 짜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 뿐인가? 냄새가 맡도 못하지 않은 것 아닌가? 주렁주렁 매달려 소가 움직일 때마다 이 후산은 뭐가 그리 좋은지 더욱 많이 춤을 추지 않는가?

항생제와 소염제·해열제를 사용한다고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자궁 내에 염증산물이 심하게 부패되어 패혈증 증세로 전환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별 뽀족한 방법이 있는가? 항생제를 호되게 주사하고 약 1주일 정도 주사하면 이제는 분만 시에 통통하고 예쁘장했던 유방도 찌글찌글 가라앉아 젓 짜먹을 맛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산우의 경우는 저 칼슘 혈증에 의해서 즉 분만 시 혈액 내 칼슘 및 마그네슘, 인의 부족으로 인한 자궁수축이 원활하지 못해 분만 과정이 길어지거나 제대로 방향 및 위치를 잡지 못해 난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머리가 돌아간 경우이다.

앞다리 중 한 다리가 골반을 통과하지 못해 구부러진 경우가 많다. 머리가 돌아간 경우는 앞다리 두개를 끈을 묶어 다시 밀어 넣은 다음에 머리를 주로 입 주변을 손으로 잡거나 끈으로 묶어 정상위치로 잡은 다음에 다리를 정상위치로 잡아 놓고 구출하면 된다.

● 글의 요약 사항 : 송아지의 난산 처치 요령은 서두르지 말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 장기간 분만 과정을 거치면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리한 난산 처치를 하면 어미 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필자연락처 : 011-796-7582⟩